

Publication: Computer Times

Date: 23/11/2011

Subject: NetEvents 2011 Analyst & Media Conference for Networking, Telecommunications and Security

<http://www.computer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20>

### 네트워크, 통신, 보안 분야 트렌드 한 눈에

2011 넷이벤츠, 16-17일 양일간 태국시 열리

2011년 11월 23일 (수) 12:10:45

이홍길 기자 G\_jy@computertimes.co.kr

전 세계 네트워크 및 통신 분야에 대해 상호 토론하고 업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11 넷이벤츠' 행사가 11월16일과 17일 양일간 태국 푸켓에서 열린 가운데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IT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를 살펴보고 심도 깊은 토론이 펼쳐졌다.

기조연설에서 니르 주크 말로 말로 네트워크스 CTO 겸 설립자는 "현대 말웨어는 엔드유저 컴퓨터 한 대의 공격만으로 유포하는 곳 어디든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유저를 타겟으로 하는 현대의 공격유형에 대해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감지하는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1 넷이벤츠 행사에서는 기조 연설에서조차 보안을 이슈로 할만큼 올해 참가업체들의 핵심은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EO급 이상의 임원과 관련 시장 조사 기관 및 애드 지 약 15개 업체 등 20개국 800여명이 참석했다.

#### 넷이벤츠 주요 토론의 핵심은?

-네트워크, 통신 그리고 보안



이번 행사에서 기조연설자로 등장한 니르 주크 말로 말로 네트워크스 설립자 겸 CTO는 현대 공격의 유형은 특정 타겟의 유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안적인, 혹은 대항의 아이디어를 공격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 유형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니르 주크 "우리는 4년째 무선 제품을 판매하고 이 중 57%는 기존의 번들로 패키지가 전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기존의 소프트웨어로는 최근의 표적공격에는 잘 보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해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니르 주크 말로 말로 네트워크스 설립자 겸 CTO에 이어 16일 발표자료는 IDC ANP 아시아 퍼시픽 엔드 유저&모바일리더 리서처 팀 일원이 나서며 그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스마트폰, 태블릿의 성장세와 비교해 데스크톱PC의 이용자 기업 성장률은 4~5%에 지나지 않으며 모바일 디바이스는 아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에게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 사용의 증가로 기업 내부의 보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16일 발표에서는 새로운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위한 전략 및 베스트 프랙티스를 비롯해 무선 기술은 중국에 있어서도 유선 기술을 완전히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17일 넷이벤츠 행사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업체들이 패널로 등장해 발표자와 함께 주요 핵심 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 기조연설에서 이안 키는 가트너 부사장은 "가상화와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주요 업체 가운데 아리스타와 브로케이드, 엑스텔림 네트워크스, HP와 함께 긴장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다글라스 아리스타 부사장은 "가장 수익을 내는 대형의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은 어떻게 기업에 적용해서 수익을 내고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네트워크의 운영에 수익의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츠드 엑스텔림 네트워크스 기술 부사장은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CIO 들은 말한다"며 "스토리지나 이더넷으로 변화하고 하이퍼퍼포먼스 플랫폼으로 점점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지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 네트워크 운영의 요미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 HP의 해리 월드워드는 디렉터는 "핵심은 중요하다"며 "단순히 어느 한 영역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팅, 스토리지, 임팩트, 클라우드, 메니지먼트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 구현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개방성, 상호 운용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은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넷이벤츠 행사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사실 각계가 클라우드에 대한 많은 논의를 펼치고 있다.

오닐 애널리스트 엔트 위커는 "클라우드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부터 컴퓨팅과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대두했고, 보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등장했다.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변화하는 것처럼 최근에도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클라우드가 편리함을 주며 탄력적이고 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 등은 충분히 좋은 기술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7일 진행된 2011 넷이벤츠 글로벌 키노트 발표자로 나선 존 맥휴 브로케이드 부사장 및 최고마케팅책임자는 "경제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업의 CIO들은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투자할 곳을 결정해야 하고 IT업계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투자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CIO들은 조직의 리더가 와서 정보안전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활용해 보다 친환경적인 아키텍처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맥휴는 "기업의 CIO는 여전히 물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압박 상황과 자문업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CIO는 기술보다 비즈니스의 중요성에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